

사회

비틀거리는 연말... 상무·용봉지구 유흥가의 밤

노래방 취객들 위협한 성매매

보도방 접대부들 위생 문제... 경찰은 단속 '뒷집'

광주시 서구 상무지구와 북구 용봉지구의 노래방이나 술집 등 일부 유흥업소들이 불법 성매매의 온상을 넘어 성병의 근원지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상무지구는 일명 '2차'가 가능한 접대부를 공급하는 '보도방' 접대부가 300여 명이나 되지만 이들은 보건증도 없는데 정기적인 신체검사를 받지 않아 불특정다수의 취객들에게 마구잡이로 성병을 옮길 가능성이 크다.

12일 상무지구 유흥업계에 따르면 이 지역에는 라마다 호텔 뒤편과 콜롬버스시네마 인근 등 2곳으로 나뉘어 100여곳의 유흥업소들이 자리 잡고 있다. 대부분의 업소는 노래방이나 노래홀·뮤직홀 등의 간판을 달고 영업 중이나 실상은 접대부 고용이 가능한 유흥주점으로 영업허가를 받은 곳이다.

유흥업소들은 밤마다 물리는 손님들로 인해 자체 종사 접대부(속칭 '지정 아가씨')만으로는 감당이 불가능하며, 이에 따라 모든 업소들이 접대부를 공급하는 보도방을 이용하고 있다.

상무지구 일대에서 활동하는 보도방은 60~70여곳에 이르며 주부 접대부를 주로 취급하는 보도방과 노래방 도우미 전문 보도방, '2차'까지 가능한 접대부를 고용해 활동하는 보도방 등 고객들의 요구에 따라 세분화돼 운영되고 있다.

취재 결과, 이중 2차가 가능한 접대부를 쓰는 보도방은 15~20여곳에 이르며 6~7개 업소는 접대부 20명 이상을 보유한 기업화된 보도방으로, 일부 보도방은 조직폭력배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이들 접대부들 대부분이 하루 1차례 이상의 성매매를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북구 용봉지구의 일부 노래방들도 유흥주점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보도방 접대부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들 노래방에서 손님과 여성 사이에 은밀하게 2차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유흥주점으로 신고된 업소들이 접대부 고용시 보건증의 신고를 거쳐 필히 보건증을 발급받고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는 반면, 이들 보도방에 소속된 접대부는 신고는 물론 기본적인 보건증마저 소유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한 유흥업소 업주는 "고용 아가씨는 몇명 안되는 데 손님이 급하게 요구하면 보도방 아가씨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들 보도방 접대부의 대부분은 하루 2차례 이상의 성매매를 가지는 경우도 있지만 보건증사 자체를 받지 않기 때문에 누가 어디서 어떻게 병을 옮기고 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기업화 된 보도방들은 접대부 공급을 놓고 유흥업소에 횡포까지 부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보도방 접대부를 이용하는 업주에게 자신의 업소만 이용할 것을 강요하거나 손님과 접대부의 2차를 주선할 것을 주문해 업소가 보도방 말을 듣지 않을 시 가져없이 접대부 공급을 중단하는 등 유흥업계를 둘러싼 또 다른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

업소들은 접대부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손님이 끊길 수 있어 '올며겨자먹기'로 보도방의 주문에 응하고 있다.

이런 실정임에도 보도방에 대한 경찰의 단속은 없는 상황이다. 지난 3월 한차례 경찰의 단속이 있을 후 몇몇 보도방 업주들이 입건되는 일도 있었지만 이후 단 한차례의 단속도 없었던 게 유흥업계의 얘기다.

노래방 업주 박모(38·가명)씨는 "상무지구 노래방을 운영하지만 도가 지나친 모습을 한 두번 보는 것이 아니다"며 "차라리 대대적인 단속이라도 해서 업계가 정화되는 계기라도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오현섭 전 여수시장

징역 13년 구형

벌금 5억·추징금 6억원

검찰이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오현섭(60) 전 여수시장에 대해 징역 13년, 벌금 5억원, 추징금 6억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송삼현)는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홍승민) 심리로 열린 오 전 시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오 전 시장은 지난해 여수시 야간경관조명사업의 시공사 선정에 대가로 N사로부터 1억원을 받아 보관하다 지난 5월 측근인 주모씨를 통해 시의원 10명에게 500만원씩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 전 시장은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여수를 지역위원회에 불법 선거자금 7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오 전 시장은 야간경관조명사업과 이순신광장조성사업 과정에서 모두 8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9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또 오 전 시장의 수뢰 사건과 관련해 구속 기소된 여수시청 전 국장 김모(여·59)씨에 대해 징역 5년에 벌금 5000만원, 추징금 3400만원을 구형했다. 김씨는 야간조명업체인 N사로부터 돈을 받은 뒤 이 가운데 1억원을 오 전 시장의 측근인 주씨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오 전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30일 열린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나원침 (8194) 김종두



전차포사격장 소음·파편 피해

장성·담양 주민들에 국가 배상

대법원 확정 판결

포사격장 인근 주민들이 사격장의 소음과 파편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2일 "장성군과 담양군 일부 주민들이 '전차포 사격장의 소음과 파편으로 인해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에는 전차포 소음의 측정 및 평가에 관한 법리나 소음피해로 인한 수인한도에 관한 법리 등을 오인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며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확정 판결을 내렸다.

이번 법원의 판결은 지난 1일 '매항 리사격장 인근 주민들이 입은 소음피해와 관련해 국가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대판결의 판결 등과 맞물려 유사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광주지법은 2006년 7월 7일 장성군 진원면과 담양군 대전면 등 10여개 마을 주민 150명이 낸 손해배상 소송의 1심 재판에서 '3개 마을 주민 80명에 대해 1인당 32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담양군 대전면 육군 기계화학교의 전차포 사격장 인근 주민들은 2002년 9월 '사격장 반경 2km내 주민들이 51~88dB(데시벨)을 넘나드는 소음과 포탄 파편으로 피해를 봤다'며 1인당 5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 대가

2억 받은 건설사 대표 구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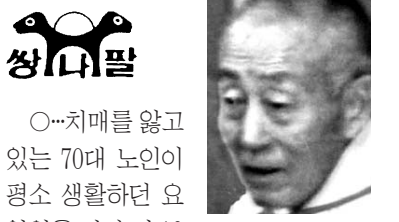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여환섭)는 11일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을 주는 대가로 수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한화건설 대표이사 이근포(59)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부사장으로 재직하던 2005년부터 지난해 사이 유모(64·구속)씨 등 식당 운영업자들에게 회사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을 주고 2억4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 9월 정유공장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을 주고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SK건설 사장 김모(59)씨에게도 소환을 통보했다.

/연합뉴스

"실종된 치매 노인을 찾습니다"



○치매를 앓고 있는 70대 노인이 평소 생활하던 요양원을 나간 지 10일이 넘도록 돌아오지 않아 가족과 경찰이 사례금 100만원을 걸고 수소문.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박연탁(78·사진)씨가 지난 3일 오후 8시30분께 광주시 북구 한 요양원을 나선 뒤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데 키 165cm의 박씨는 짧은 스포츠용 머리에 분홍색 한자복과 베이지색 점퍼를 입고 요양원을 나선 것으로 추정.

○경찰 관계자는 "박씨를 목격한 시민은 12 또는 요양원 전화 062-571-0129로 연락해 달라"고 요청.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또 편의점 강도

광주 마북동서 18만원 흥기 강탈 도주

지난 11일 오후 7시10분께 광주시 서구 마북동 모 편의점에 고인이 침입해 업무(여·50)를 흥기로 위협한 뒤 현금 18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업주는 경찰에서 "2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남성이 카운터 쪽으로 걸

어와서 갑자기 흥기를 꺼내들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편의점 폐쇄회로(CC)·TV에 찍힌 모습을 토대로 키 168cm 가량에 흰색 모자와 은색 점퍼 차림을 한 용의자를 쫓고 있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무안 약사사 불 요사체 태위

11일 오전 11시께 무안군 무안을 약사사 요사체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불이 나 요사체 일부를 태우고 2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요사체 내부 30㎡와 스님

들의 소장품 일부가 불에 탔지만 인명과 문화재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쓰레기를 태우다 불씨가 옮겨 붙은 것이 아닌가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서부취재본부=김민준기자 jun@



춤추는 몰래산타 "크리스마스 이브에 만나요"

자원봉사자 100여명 참가

광주·전남 진보연대와 '사랑의 몰래산타 광주본부'가 지난 11일 오후

광주시 북구 신안동 전교조 광주지부 강당에 문을 연 '2010 몰래산타 학교'에 참가한 100여명 자원봉사자들이 캐럴에 맞춰 율동을 배웠다.

참가자들은 산타학교에서 노래와 율동·풍선만들기 등 2~3차례 기본 교육을 받은 뒤, 크리스마스 이브인 오는 24일 가정형편이 어려

운 어린이에게 몰래 찾아가 선물을 전해주고,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2010 사랑의 몰래산타 대작전'에 투입된다.

몰래산타들은 독거노인의 집을 찾아가는 한편 크리스마스 트리도 함께 꾸밀 예정이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강·절도범 잡으면 피해자에 알려준다

경찰청, 통보 의무화

경찰청은 앞으로 절도나 강도 사건 범인을 붙잡으면 피해자에게 검거 사실을 통보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

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은 범인을 검거해도 이를 알리지 않는 게 통상적인 관행이었다.

경찰은 "피해자가 범인 검거 사실을 알 수 없어 피해품을 회수하는데

불편을 겪어온 것이 사실"이라며 "국민을 우선으로 형사사건을 처리하고자 검거 통보를 의무화하고 피해품 반환에 노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살인이나 납치 등 중요 강력사건을 신속히 해결하면 평가 점수를 늘리는 쪽으로 형사활동 평가체계도 개선기로 했다. 일선 경

찰서에서는 형사들이 평가점수에 신경을 쓰느라 범인을 붙잡기 어려운 중요 강력사건보다는 쉽게 점수를 딸 수 있는 사건에 매달리는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밖에 경찰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온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하지 않고 연중 상시 단속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for 'K' brand dehumidifiers. It features a cartoon knight on a horse, the slogan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Use good hearing aids), and lists various models and prices. Contact information for branches in Gwangju, Suncheon, and Mokpo is provided.